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0호> 2018년 1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올해 1월, 약 50년만에 오이타강을 건너는 새로운 다리인 소린오오하시(宗麟大橋)가 개통되었습니다. 소린오오하시라는 이름은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다리 근처에 오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의 저택이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 입니다. 앞으로 What`s up, OITA 일본어판에서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월호는 오이타시의 오오토모 소린 프로모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국민문화제 오이타 2018’ 개막

‘오이타 다이차카이’라는 타이틀로 ‘제 33회 국민문화제 오이타 2018’과 ‘제18회 전국 장애인 예술 문화제 오이타 대회’의 개최식이 나루히토 왕세자 부부를 맞이해, 오이타시 이이치코 종합 문화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연령과 장애에 관계없이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오프닝 이벤트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이타현내 전 지역에서 51일간 164개의 이벤트 및 사업이 실시됩니다.



<오이타시 소식>



What`s up, OITA! 11월호’(일본어판)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대망의 첫 번째를 장식한 오이타시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오오토모가 (大友家) 제 21대 당주인 오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은 1530년 분고후나이(현재 오이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와의 만남을 계기로 많은 포르투갈 선교사가 분고후나이를 방문하게 되었고, 덕분에 남만 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이타시에서는 2030년에 탄생 500년을 맞이하는 ‘오오토모 소린’과 ‘남만 문화 발상 도시 오이타’를 오이타시 대표로 전국에 정보 발신해 나갈 오오토모 소린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오이타역 앞 광장>



오이타역 앞에 있는 오오토모 소린(大友宗麟) 동상과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동상,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세계 지도, 자비에르 성 등 남만 문화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남만 BVNGO(분고) 교류관>



2018년 9월 30일에 오픈한 남만 BVNGO(분고) 교류관은 오오토모 소린이 살아온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컨셉으로 영상 등을 통해 오오토모 소린의 생애와 유적에 대해 배우거나 당시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오이타시 국제화추진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
오이타시 이벤트 및 관련 정보 발신 중
www.facebook.com/OitaCityKokusai/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0호> 2018년 11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우스키 타케요이 (竹宵)



오이타는 왕대(마다케·真竹)의 생산량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만큼 대나무 공예품도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오이타에서는 매년 11월 가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대나무 등불 축제가 우스키시, 다케타시, 히타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라고 합니다.

제작년 다케타의 치쿠라쿠, 작년 히타의 센넨아카리에 이어 올해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우스키의 타케요이에 다녀왔습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우스키 타케요이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약 2만개의 대나무 등불이 우스키의 성하마을을 붉게 물들입니다.

성하마을 특유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니오자 역사의 길을 따라 걸다보니 어느새 멋진 오브제와 화려한 조명, 대나무 등불에 매료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각각의 단체의 개성이 잔뜩 묻어나있는 오브제는 귀여운 캐릭터, 요괴 등도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하며, 곳곳에서는 음악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운치있게 만들어줍니다.

타케요이의 메인 이벤트인 한나히메 행렬은 예로부터 우스키에 전해져 내려오는 마나노초자의 슬픈 전설과 함께 한나히메 영혼의 귀향을 재현한 것입니다. 우스키 석불을 만들었던 마나노초자에게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딸 한나히메가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황태자가 한나히메를 보고싶어하자 초자 부부는 한나히메를 본따 그린 타마에함을 바칩니다. 이후 한나히메와 황태자는 결혼하고 딸도 출산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한나히메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를 깊이 슬퍼하던 초자 부부는 예전에 바쳤던 타마에함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타마노함의 귀향 길을 대나무 등불로 환히 밝혔다는 이야기에서 탄생한 것이 한나히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보기 위해 출발 지점인 야사카 신사 앞에는 마치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9시가 되자, 가마를 타고 한나히메의 딸 타마에히메, 어머니 타마에즈, 한나히메로 차례차례 등장했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 눈에 담으랴 뒤를 따라가랴 구경하던 사람들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앉아있던 한나히메는 황태자도 반했다던 전설만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매년 현내의 대나무 등불 축제를 방문하며 드디어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를 전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스키, 다케타, 히타에서 열리는 대나무 등불 축제는 옛 정취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성하마을에서 열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 곳 모두 저마다의 지역 특색이 가득 담겨있고 분위기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세 곳을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는 매년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 주말에 각각 개최됩니다. 여러분도 11월에는 오이타의 대나무 등불 축제를 찾아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